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2월 21일(주일) 제1087호

온누리 상반기 힘찬 출발!



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 ... 3월 5일 오후 4시 목양대회 고난주간 심야예배,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마리아행전 이어져

온누리 공동체가 2016년 상반기
를 힘차게 출발한다. 오늘(21일) 양
재 온누리교회 특별한초대공동체
를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공동체
상반기 개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3월 5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
교회 본당에서는 '온누리 공동체
목양대회'가 개최된다. 온누리 공동

체 목양대회는 공동체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교역자, 장
로, 권사, 순장, 다락방장 등 리더십
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대학청
년부 MC, 차세대 코치, 총무 등의
리더십들도 참석해야 한다. 목양대
회에서는 신임 순장과 다락방장 등

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2016년 상반기에는 고난주간 심
야예배(3월 20일), 장애인주일(4월
17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5월
18~19일), 창조신앙교육컨퍼런스(5
월 27~28일), 마리아행전 (6월
22~24일)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
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헌금 113억 7천만 원 작성

헌금 27,873명, 재능기부 336명, 중보기도 1,429명

2016년 선교헌금 작성 결과가 집계
됐다. 27,873명이 113억 7천만 원을
작성했다. 지난해보다 작성인원과
헌금 모두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27,276명이 112억 원을
작성했다. 선교헌금 뿐만 아니라 재
능기부와 중보기도 후원도 이어졌
다. 336명이 재능기부, 1,429명이 중

보기도 후원을 약속했다.

2016년 봉헌한 선교헌금은 73개국
878명 선교사 후원, 사역지원, 교회개
척, 통일선교 준비,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기관 지원 등에 사용된다. 선교
헌금 작성은 연중 내내 가능하다. 선
교헌금 방법은 2000선교본부에 문의
하면 된다. 문의: 02-3215-3616

■ 2016년 상반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정 ■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3일(화)	가정사역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3일(화)	용산	비전홀	오후 6시
2월 25일(목)	서대문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5일(목)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2월 25일(목)	찬양	비전홀	오후 6시
2월 25일(목)	여의도	시온홀	오후 6시
2월 26일(금)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2월 26일(금)	강서	한동홀	오후 6시
2월 26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2월 26일(금)	마포	시온홀	오후 6시
2월 28일(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4시 30분
3월 1일(화)	이수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1일(화)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3월 1일(화)	S브릿지	시온홀	오후 6시
3월 3일(목)	관악금천중앙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3일(목)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3월 3일(목)	이촌	비전홀	오후 6시
3월 4일(금)	강조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4일(금)	성동광진	비전홀	오후 6시
3월 4일(금)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3월 6일(일)	특별한 초대	수영홀	오후 4시
3월 6일(주일)	보누리	보누리비전센터	오후 1시
3월 8일(화)	하강	두란노홀	오후 6시
3월 8일(화)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3월 8일(화)	성북	시온홀	오후 6시
3월 10일(목)	광명	관악(이)광교회	오후 7시
3월 12일(토)	노원	목양(이)전교회	오전 10시
3월 12일(토)	고양은평	진관교회	오후 5시
3월 12일(토)	김포	태광교회	오후 12시

〈양재〉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2월 21일(주일)	특별한초대	민음홀	오후 5시
2월 27일(토)	서초D	드림홀	오후 5시
3월 2일(수)	서초A	화평홀	오후 7시 30분
3월 2일(수)	양재	기쁨홀	오후 8시
3월 2일(수)	서초C	온영홀	오후 8시
3월 2일(수)	산본안산	드림홀	오후 8시
3월 4일(금)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8시
3월 4일(금)	강남B	화평홀	오후 8시
3월 4일(금)	서초B	기쁨홀	오후 7시 30분
3월 4일(금)	POINT5	도곡교육관 온유홀	오후 8시 15분
3월 6일(주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5시
3월 6일(주일)	푸른누리	온영홀	오후 3시 30분
3월 8일(화)	CMN	온영홀	오후 7시
3월 8일(화)	분당A	드림홀	오후 7시
3월 10일(목)	송파	화평홀	오후 7시 30분
3월 10일(목)	안양평촌	드림홀	오후 8시
3월 11일(금)	강남C	화평홀	오후 8시
3월 11일(금)	강남A	온영홀	오후 7시
3월 11일(금)	분당B	드림홀	오후 7시
3월 12일(토)	강남D	화평홀	오후 7시

〈캠퍼스〉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3월 13일(주일)	부천 믿음	사이닝홀	오후 4시
3월 10일(목)	소망	사이닝홀	오후 7시 30분
3월 6일(주일)	사랑	사이닝홀	오후 4시
3월 11일(금)	화평	사이닝홀	오후 7시 30분
3월 13일(주일)	희락	경천홀	오후 4시
2월 26일(금)	수원 동누리	경천홀	오후 7시
2월 25일(목)	북누리	비전홀	오후 7시
3월 4일(목)	서누리	비전홀	오후 7시
3월 4일(목)	남누리	경천홀	오후 7시
3월 11일(목)	대전 남양주	분당	오후 7시 30분
3월 11일(목)	평택	분당	오후 8시
3월 4일(금)	인천	분당	오후 8시
3월 4일(금)	강동A	중도 파스파이스(중)	오후 7시 30분
2월 25일(목)	강동B	분당	오후 7시
3월 11일(금)	양지	분당	오후 7시
3월 6일(주일)		박모세홀	오후 2시

확대 당회

일시: 2월 27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제직회·공동의회

2월 28일(주일) 2부예배 후
대상: 교역자, 제직
2월 28일(주일) 3부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교인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16일, 한양대학교병원 외과의국 회의실에서 홍진의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올해 29세 된 외과전담 남자간호사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4년 2개월째 근무 중이다. 그는 수술실에서 능수능란한 ‘미스터 나 이팅게일’로 통한다. 각종 암수술, 장기이식수술, 혈관수술 보조(assist), 수술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주말에는 의료선교팀(CMN)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노아팀과 함께 소외된 이웃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다. 의료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간호사는 사명감을 높여주는 직업”이라고 소개하는 멋진 청년 홍진의 형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의료선교팀(CMN) 남자 간호사 홍진의 형제

“보건의료 정책, 간호실무 교육하는 보건의료전문가 꿈꿔”



외과전담 간호사 홍진의 형제.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홍진의 형제는 2012년 1월부터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근무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남자 간호사가 활동한지 54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간호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 1960년에는 남성은 응시할 수 없었다. 1962년에 우리나라 최초 남자 간호사가 탄생했다. 간호사는 여성들의 전문직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금남(禁男)’의 영역으로 통용됐었지만 남자 간호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5년 1,000명, 올해 10,000명을 넘겼다.

홍진의 형제는 어릴 적부터 간호사를 꿈꿨

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컸다. 사촌누나가 간호사였고, 교회 누나들 중에 간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많았다. 간호학을 공부하는 누나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간호사는 전문직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홍진의 형제가 간호사가 되겠다고 하자 팔짝 뛰었다. 당시만 해도 남자 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었다. 병원생활도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갈 길이 까마득했다. 그럴수록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확고해졌다.



지난해 필리핀 아웃리치.

고졸 검정고시생에서 간호사가 되기까지

학창시절도 남달랐다.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홍진의 형제는 입시교육에 치중된 공교육의 현실이 답답했다. 많은 것을 꿈꾸고, 공부하고 싶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다. 학교 안 울타리 교육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날부터 고등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19세 되던 해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도 했다. 여성가족부에 속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참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2008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소년 정책 관련 계획수립, 청소년 인권 보호,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홍진의 형제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정기회의와 정책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에서 서울을 오갔다. 평일에는 검정고시 공부와 청소년위원회 활동, 주말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청소년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청소년참여위원회(당시 위원장 홍진의 형제)에서 활동하던 중 문제의식을 갖고 ‘청소년정책 공모전’을 통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교통 관련 규제를 바꿔달라고 정책 제안을 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느꼈던 차별과 인권에 대해 구구절절 요약했다. 당시 버스 요금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제안을 수렴한 정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에 학생증과 더불어 청소년증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할인기준에도 청소년 연령이 추가됐다.

그는 군산간호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첫 학기에 250여 명의 간호학과 학생 중에서 7등을 했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게 25살에 한양대학교 병원 간호사로 취업했다. 드디어 어릴 적부터 품은 간호사가 되는 꿈을 이뤘다.

홍진의 형제가 간호사가 되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다. 청소년기에 방황하지 않도록 신앙과 기도로 이끌어준 군산성화교회 목사님과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다.

봉사할수록 비전이 더 커졌다

홍진의 형제는 간호사의 꿈을 이루고 하루

도 빼놓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기도다. 기도처소가 필요했다.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야 했다. 수송문 끝에 온누리교회를 만나게 됐다. 그의 기도제목은 이랬다.

“하나님, 주일에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제 달란트를 사용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도가 응답됐다. 평일에 근무하고, 의료선교팀(CMN)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5세 최연소 나이로 의료선교팀 마노아팀에 소속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의료선교팀 마노아팀은 국내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있다. 매월 셋째 주 농어촌 미자립교회,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들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해외 아웃리치도 간다.

홍진의 형제는 마노아팀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해외 의료봉사를 다녔다. 인도네시아 ‘람퐁(Lampung)’ 지역에서 소변·혈액 검사, 간단한 수술 보조, 소독, 주사 투약 등으로 섬겼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2014년에는 네팔과 인도 점령 ‘당가리(Dhangadhi)’ 지역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만났고, 2015년에는 필리핀 마닐라, 타워빌을 찾아가 도시빈민 노동자 가정과 무의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다.

의료선교팀 마노아팀은 하루에 300명씩, 2박3일 꼬박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도 환자의 입장을 잘 듣고, 공감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이 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려 노력합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따뜻하다. 현지인들은 의료진이 온다고 하면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의료봉사를 멈출 수 없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포부가 커지는 것도 이유다.

“훗날 저개발국에 찾아가 보건의료 정책과 간호실무를 교육하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홍진의 형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한 업무 능력과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활짝 핀다.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다. 이런 멋진 청년 덕분에 미래가 밝은 것 아닐까.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말씀의 기적

사도행전 13:42~52

“말씀에 대한 반응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강해지고, 무관심에서 갈망으로, 갈망에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말씀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는 두 가지 기적이 교차 반복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물리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죽은 것도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 또한 기적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물리적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 라일 목사는 이것을 도덕적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기적입니다. 나눔도 도덕적 기적입니다. 한 영혼의 성품에 나타나는 기적도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돌이 날라 왔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테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이것도 도덕적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도덕적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온순한 삶을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물리적 기적과 도덕적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도덕적 기적’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도덕이 세 가지 사항과 관련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덕과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잘 정돈하고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것이 도덕과 관련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된 우주와 역사 그리고 인류가 나아가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와 우주와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이 도덕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에서 이것을 편대를 이

뤄서 항해하는 선단에 비유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함께 항해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서로 부딪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배가 건강해야 합니다. 엔진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배가 잘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차원의 도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와 역사와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 도덕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적은 자신과 주변사람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창조 목적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다른 지명을 쓴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된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교회와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교회가 우리가 아는 안디옥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천 미터 정도 되는 산간지역입니다. 요새와 같은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티스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은 군인들이 세웠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에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물리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 다. 병자가 나았든지, 귀신이 떠나갔든지 등의 물리적인 기적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의 모임 문화는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식과 절차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대 예배와 비슷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구약성경 몇 구절을 읽고, 회당장이 설교할 수도 있고,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방문객이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즉석에서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무대였습니다. 회당의 질서만 존중하면 발언

할 수 있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전까지 기록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에서부터 이름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 쓴 것은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왔지만 두 사람에게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발언할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세레 요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이방인들은 구약성경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구약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내가 되었다.”

바울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회당에서 구약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몇 구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행 13:23).

“예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행한 뒤 예수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행 13:29~30).

“우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행 13:32).

반복되는 단어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입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역사 속 약속에 따라 오셨고, 약속대로 삶을 통해서 이루셨고, 다시 오실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진리에 눈을 떠서 스스로 메시야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메시야가 되신 종교적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에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까지 따지면 더 많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뜨게 하는 ‘성경’

구약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이방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보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이 무엇이며,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쯤 와 있으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눈을 뜨게 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는 눈이 떠집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예언이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의 삶, 세상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기

3. 바로 살기_크리스천과 일



송동호 목사

Now Mission 대표
IBA(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사무총장

어느 주일 저녁, 한산한 지하철 안이었다.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가 그야말로 ‘딱’이 되어 졸고 있었다. 어디를 다녀오는 길 이기에 저렇게 피곤해할까.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혹시, 저들이 교회 다녀오는 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월요일 아침은 어찌 되겠는가.

‘월요일’이란 말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월요일은 정말 피곤한 날이다. 주일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크리스천들은 더 그렇다. 주말을 통해 회복하기는커녕 모든 힘을 소진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날 실신한 것처럼 졸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월요일 아침을 살펴주는 것이 목회자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라. 주일을 잘 보낸 월요일 아침은 신나고, 힘이 넘치는, 무장된 병사의 모습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볼 보듯 뻔하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변화를 위한 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인생의 3분의 1, 7일 중 5-6일을 사는 일터가 생존의 현장으로 전략해 버렸다. 일터가 ‘생존이 전부인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무엇을 하고, 꿈꾸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은 신앙을 구현하는 자리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창조-타락-구속’이란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 척도 세 가지를 알려준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광과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타락한 천사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깨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깨지면서 모든 판단 기준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하여 구속을 약속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창 3:21), 사탄(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3:15). 역사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역사다. ‘창조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구속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이시며, ‘선교의 하나님(Mission Dei)’ 이시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를 구속사(Salvation History)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가장 역동적으로 알파 포인트에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성취되어 가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시며, ‘역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오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가진 세계관을 읽을 수 있다. 바울의 개인적 신앙과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세계관의 틀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From God-창조), 주로 말미암고(By God-운행), 주에게로 돌아감이라(To God-심판).”

창조-운행-심판, 이 세 가지 정의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한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과, 인류의 모든 삶들은 주를 위하여(For God)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고후 5:15-1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고(존재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는다(목적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과 노동(직업론, 노동론), 일터와 선교에 대해서도(선교관)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성경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땅을 사는 목표와 가치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꿈꿔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등 수많은 위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삶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의 일터는 생존의 현장일 뿐이었을까? 그들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과

고백을 지켜온 일상일 뿐이었을까? 아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하나님의 선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성경에는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참여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힌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결코 잊힐 수 없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확인한다.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노동

우리의 일상, 일과 일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보자.

일은 사명이다(Business As Mission). 성경적 관점에서 일은 거룩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일은 창조주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요, 사명 그 자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6-28).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창조의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목적은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청지기,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다.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과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투영하는 사명(Mission)이다. 그러므로 일은 정복과 통치 행위로서 하나님의 목적이며, 창조의 축복이며, 거룩하고 존엄한 사명이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깨어져서 일부 다처와 성적 방종, 타락을 가져왔다.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노동명령이 깨져서 힘이 강한 자들의 지배와 착취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동이 저주로 바뀌었다.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이 타락한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기회로 전락했다.

유튜브에 스티브 커츠가 만든 ‘MAN’(인간)이라는 영상이 있다. 거기에는 인간이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고 거침없는 탐욕으로 세상

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존귀한 인간의 사명을 잃어버린 인류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한 구속이 우리를 회복시켰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고, 창조명령도 다시 회복시켰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과 사명을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이름과 영광, 자아성취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우리의 일은 예배다(Business As Worship).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아담을 에덴동산에 거하게 하고, 그곳에서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사명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창조세계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요 사역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 2:15).

여기에서 ‘경작’과 ‘보호’는 인간의 ‘정복’과 ‘통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등장하는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AVODAH’다. ‘노동하다’ 혹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말이다. 창세기에서 에덴의 일(노동)은 ‘예배’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예배만큼이나 노동도 ‘거룩한’ 노동인 것이다. 이것은 타락 이전에 에덴에 거하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며 명령이다. 아담만 아니라 하와도 노동이라는 거룩한 창조명령에 따라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다. 그렇기에 남녀 모두 거룩한 노동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명령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행위인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 에덴에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땅을 일구 경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있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노동)은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그의 의로운 뜻을 고난 중에도 묵묵히 받들어 살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예배다. 그렇다.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일함으로 선교하는 것이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한 일과 속된 일?

성속이원론(聖俗二元論)이 우리의 신앙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Jay Bennett은 “시장과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오래된 두꺼운 벽이 있다”고 했다. 교회와 일터, 선교와 일터, 교회와 사역과 관련된 ‘거룩한 일’과 직업과 일터에 관련된 ‘속된 일’을 나누고 있다. 우리 삶 속에 신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로 제한해 왔다.

타락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로서의 노동은 이제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를 갖는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노동의 저주설

은 ‘육체적인 노동은 노예나 피지배인들이 하는 비천한 것’이라고 여기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이다. 마르크스의 노동관도 인간이 자기실현을 통해 자연을 인간화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 있는 현재의 결과로서 부의 증진이 있을 뿐 유해 유독한 것이라고 여겼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원론은 불교, 힌두교, 유교, 노장사상 등 동양사상의 영향이다. 노동은 정신적인 일보다 고상한 것이 될 수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급과 신분 차별을 가져왔다. 육체노동을 기피하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聖)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俗) 하지 말라”(행 10:15)고 말하

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옳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깨어져 구속이 필요할 뿐이다. 세속적 혼합주의는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일들,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과 죄에 대한 바른 분별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바른 참여도 없다. 거룩, 사명(Mission)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불의에게 명분을 쥐서는 안 된다. 거룩한 일은 반드시 거룩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거룩한 일을 세속적 방식으로 이루려는 시도들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정직한 수고를 다하는 일을 가장 고상한 일로 여겨야 한다. 땀 흘리는 수고의 기쁨을 배워야 할 것이다(잠 6:6~11, 살전 4:11~12).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수행해야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화두 중 하나가 선교적 삶이다. 선교적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과 삶의 일치, 선포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른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전하는 바와 사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과 다른 삶 때문이다. 우리가 외치고 전하는 선포와 다른 삶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는 바와 전하는 바가 삶으로 이웃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신앙과 고백, 그리고 선포하는 바가 삶으로 나타날 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를 증명하는 것 또한 선교적 삶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손가락질당하고,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오늘날이야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선교적 삶은 복음 가시성을 요구하는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응전이다. 이제 우리의 선교는 ‘전하는 것(Speak Out)’만이 아니라 실현이다. ‘사는 것(Living Out)’이어야 한다. 복음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웃과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세상의 복이 되라고 보내셨다. 우리가 복이며, 메시지다. 우리가 곧 복음이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Preached the gospel all the time, but if necessary use the words)”라고 말했다. 복음전도와 선교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행함과 일치되지 않는 많은 말은 도리어 거침돌일 뿐이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

은 삶과 일치하는 몇 마디 말이 훨씬 더 능력이다. 삶을 담보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세상을 향한 준비된 복음이며, 메시지인 것이다.

오늘날의 선교는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우리의 현장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오늘날의 선교 소명은 직업 소명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모든 일터 속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고 있다. 자신들의 일터에서 헌신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목회적 돌봄, 지속적인 멘토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성육신적인 몸이며, 세상을 향한 존재적 메시지다. 선교적 교회 혹은 선교적 공동체란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이런 선교적 삶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존재론적 선교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 선교적 공동체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진정한 선교사들이다. 한국 교회의 선교 동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 나라로 가야 하는 선교적 관점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선교자원들은 결코 고갈되지 않았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교회와 선교 단체의 지도자들의 관점이 변해야 한다.

세계화와 비즈니스 활동의 결과가 우리를 이동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국가에 진입했다. 땅 끝이 목전에 와 있다. 대문 밖이 선교지다. 이제 세계 선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영역과 지역,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는 동일한 비전과 열망을 품고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문인선교는 몇 사람 특별한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직업을 가진 일터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당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음이 더 필요한 영역과 나라와 민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재정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법을 배웠다.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우리의 소유를 관리하고, 모든 날들을 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고, 바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내 삶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월요일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신나고 힘차야 한다. 세상을 향하여, 영적 격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명과 선교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Good Morning It's Monday!

2016 상반기 차세대 주중프로그램 개강

차세대사역본부가 2016년 상반기 주중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차별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차세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환영할 프로그램이 많다. 차세대 주중 프로그램은 영유아성경놀이 교육, 예체능, 영어, 유대식 교육(예배, 토론, 교제), 기독교 교육(선교, 말씀, 세계관) 분야로 나누어 평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영유아를 위한 성경놀이교육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성경공부와 놀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수님의꿈아이(이하 예꿈)영역에서는 학령기 이전 차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꿈아이놀이터, 예꿈놀이학교, 예꿈사이닝키즈, 센싱 더 스토리가 바로 그것이다. 꿈아이놀이터와 예꿈놀이학교는 캠퍼스마다 대상 연령이 조금 다르다. 꿈아이놀이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꿈놀이학교는 놀이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예꿈사이닝키즈는 6~7세 차세대를 위한 말씀암송 훈련 프로그램이다. '센싱 더 스토리(Sensing The Story)'는 제작된 모형으로 성경 속 이야기를 체험하는 유아 영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유아와 저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예체능, 영어 특성화 교육

자녀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거나 흥미를 갖고 있다면 예꿈뮤지컬, 파워키즈, 키즈뮤지컬 찬양팀, 키즈챔버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예꿈뮤지컬과 키즈뮤지컬찬양팀에서는 뮤지컬 특성과 찬양, 율동을 배운다. 파워키즈와 키즈챔버는 악기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훈련을 한다.

드림시드는 24개월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영어놀이학교다. 도곡교육관에서 운영된다.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놀이를 통해 성경

차별화된 학습 환경 제공,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성경놀이, 예체능, 영어, 유대식 교육, 기독교 교육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



성경암송하는 차세대.

이야기를 배우는 과정이다.

유대식 교육(예배, 토론, 교제)

유대식교육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운영되는 '예꿈학교'와 '하브르타'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예꿈학교는 7세 아이들을 위한 유대식 눈높이 교육이다. 알데이에슈아 예배(경건), 십계명이야기(재미), 헤브루타(참여), 밥상머리·길머리·침대머리교육(네 때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브르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대식 토론 교육이다. 부모와 자녀, 친구,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선교, 말씀, 세계관)

대표적인 차세대 선교 프로그램은 JDS키즈, YDS, 선교하는 바울학교, 청소년일대일, 성경 읽는 에스라학교, FT(Frontier Teens)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차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성경과 교리를 통해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방학에는 국내외 아웃리치를 간다.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어와나, King's

Kids, 성경적세계관, 학교중보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와나(Awana clubs)는 게임, 핸드북, 교제시간으로 이뤄진 말씀 암송 프로그램이다. King's Kids는 어린이 영어성경공부 프로그램이다. 성경적세계관은 하나님의

질과 성품, 성경적 자녀 교육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중보기도 프로그램은 중·고등생들이 모여 중보기도와 큐티를 나누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다.

캠퍼스	영역	부서	대상연령	시간/요일	장소	개강일	문의
서빙고	예수님의꿈아이	꿈아이놀이터	22개월~36개월	10:30(수)	꿈아이홀/201/202	3월23일	김남영 간사 3215-3521
		예꿈놀이학교	38개월~50개월	10:00(토)	201호	3월26일	
		예꿈사이닝키즈	6세~7세	8:00(토)	꿈터/꿈이룸/비전홀	3월5일	
		예꿈뮤지컬	6세~7세	16:00(수/목)	201호(수/목)	3월12일	
		예꿈학교	7세	9:00(토)	꿈아이홀	3월12일	
	꿈이지라는땅	JDS키즈	초 5~6학년	14:30(토)	드림홀	4월23일	정성진 간사 3215-3525
파워웨이브	꿈이지라는땅	파워키즈	초 2~6학년	14:00(토)	꿈아이홀/301호	3월5일	
		꿈영사이닝키즈	초 1~6학년	9:00(토)	누리홀	3월5일	
		선교하는 바울학교	중, 고등학생	15:00(토)	민음홀	5월 중	안민경 간사 3215-3523
양재도곡	예수님의꿈아이	꿈아이놀이터	18개월~36개월	10:30(화)	꿈아이홀	3월17일	최진현 간사 570-7436
		예꿈놀이학교	4세~5세	10:30(토)	꿈터	3월26일	
		예꿈사이닝키즈	6세~7세	9:50(토)	꿈아이홀	3월12일	
	꿈이지라는땅	드림시드	24개월~7세	10:30(목)	(도곡교육관) 꿈아이홀/꿈터	3월17일	김수정 간사 570-7548
파워웨이브	꿈이지라는땅	키즈뮤지컬찬양팀	초 3~6학년	10:00(토)	비전홀A	3월12일	
		키즈챔버	초 3~6학년	11:30(주일)	비전홀B	3월13일	
		선교하는 바울학교	중, 고등학생	16:30(토)	민음홀	5월 중	이현주 간사 570-7553
부천	예수님의꿈아이	꿈아이놀이터	20개월~48개월	10:40(화)	예꿈홀/드림홀	3월29일	032-322-9686
		사이닝키즈	6세~7세	13:00(토)	예꿈홀	3월26일	
		사이닝키즈	초 1~3학년	13:00(토)	예꿈홀	3월26일	
		어린이JDS	초 4~6학년	10:00(토)	꿈아이홀	4월23일	
		파워키즈	초 4~6학년	15:30(주일)	507호	3월6일	
	파워웨이브	파워워십	중, 고등학생	09:30(토)	507호	3월26일	031-865-6600~3
수원	예수님의꿈아이	하브르타	중, 고등학생	10:00(토)	506호	3월26일	
		선교하는 바울학교	중, 고등학생	16:30(토)	새가족실	4월23일	
남양주	예수님의꿈아이	꿈아이놀이터	20개월~40개월	10:30(화)	1층 드림홀	3월29일	031-565-9686~3
		센싱더스토리	5세~6세	10:00(토)	1층 조이홀	3월12일	
		사이닝키즈	6세~7세	10:00(토)	2층 소망홀	3월12일	
		어와나	초 1~4학년	10:00(토)	1층 드림홀	3월 5일	
		King's Kids	초 2~4학년	10:00(토)	2층 민음홀	3월19일	
	파워웨이브	성경적세계관	초 3~6학년	09:00(토)	4층 경천홀	3월5일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수원	예수님의꿈아이	YDS	중, 고등학생	10:00(토)	4층 경천홀	3월5일	
		학교중보기도	중, 고등학생	주중	수원지역 중고등학교	3월 중	031-565-9686~3



목회칼럼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차세대사역본부는 주중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신앙이 함께 성숙해가도록 돕고 있다. 주일예배가 보편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육이라면, 주중 프로그램은 맞춤식 교육이다.

맞춤식 교육은 장소, 시간, 프로그램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다.

발달단계에 맞춰 놀이와 성경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다. 선교, 말씀, 세계관 프로그램도 있다. 이것이 주중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때로 부모들이 주중 프로그램에 아이를 맡겨놓고 가는 경우가 있다. 온누리교회 주중 프로그램은 위탁 개념이 아니다. 부모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된다. 아이가 성장하려면 함께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자란다

참여해야 하고, 함께 책을 읽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한다. 부모가 성숙한 만큼 아이가 성장하는 법이다.

주중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차세대사역본부는 주중프로그램 개강부터

종강까지 영성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이다. 주중 프로그램이 종강하는 시점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배운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또한 중고등생을 위한 일대일 교육과 말씀교육·교리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영적성장에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주중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될 것이다.

“남대문 5가 쪽방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주인공은 700여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남대문 5가 쪽방촌이다.

서울역 건너편 화려한 빌딩숲으로 가려진 곳에 남대문 5가 쪽방촌이 있다. 이곳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곳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들이 있다.

쪽방촌은 대한민국 빈곤층의 최전선이며, 탈(脫)노숙의 시작점이다. 돈이 생긴 노숙자들이 쪽방촌에 입주하고, 돈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이 노숙자가 된다. 남대문 5가 쪽방촌 주민들 중 30%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매달 50~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월세 25만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열악한 환경 탓인지 한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병원이라도 몇 번 다녀오면 남는 돈이 없다. 많은 복지단체나 기관들이 찾아와 생필품과 옷가지를 주고 있다. 그 덕에 밥을 굶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 문제는 영혼의 공핍이다. 그들에게는 생필품과 옷가지보다 복음이 더 절실하다.

온누리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모를 리 없다. 이미 여호수아공동체와 양재 공흥사역팀으로 이루어진 ‘남대문 5가마을사역팀’이 그들을 섬기고 있다.

‘남오순’과 ‘햇살9순’이 만들어지기까지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이 남대문 5가 쪽방촌을 가장 먼저 찾았다. 2010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후 사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양재 공흥사역팀 김희숙 권사가 합류했다. 김 권사를 시작으로 성인들이 쪽방촌 사역에 동참했다. 그렇게 청년과 성인이 함께하는 사역팀이 만들어졌다.

쪽방촌사역의 시작은 심방이었다. 쪽방촌 심방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기겁하는 주민도 있었고, 사역팀의 따뜻한 인사에 욕으로 대답하는 주민도 있었다. 그럼에도 꾸준히 찾아가 섬기자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교회에 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인근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분위기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남대문 5가마을사역팀은 주민 3명과 마을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은 매주 심방을 하면서 주민들을 예배에 초

예배처소, 양육 담당할 순장, 공동체, 목회자 절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사랑의 포장마차’.

대했다. 두 달이 지나자 주민 10명이, 반년이 지나자 주민 20명이 예배를 드렸다. 성경공부도 시작했다. 일부 주민들은 양재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교회에 등록한 주민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양육할 공동체가 필요했다. 당시 서초B공동체 담당하던 이재훈 목사가 2011년 서초B공동체에 ‘남오순’을 만들었다. 남대문 5가 주민들을 양육하는 공동체였다.

초창기 쪽방촌 예배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는 주민들 모두가 남성이었다. 복음 듣고, 예수 믿은 남성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술, 담배를 끊고, 이웃들과 다툼도 줄었다. 일도 시작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2014년에 여성순 ‘햇살9순’이 만들어졌다. 햇살9순은 강남A공동체가 양육하고 있다.

현재 남오순과 햇살9순에는 각각 20명과 13명의 순원들이 있다. 몇몇 순원들은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 주라도 순모임을 쉬면 아쉬워하는 순원들 때문에 방학도 없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과 양재 공흥사역팀이 함께 사역한지 올해로 7년째다. 청년과 성인이 협력해 사역하다보니 좋은 점이 많다. 청년들이 못하는 것은 성인들이 하고, 성인들이 못하는 것은 청년들이 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사랑의 포장마차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사랑의 포장마차는 남대문 5가 마을주민들에게 사역팀이 준비한 반찬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성인들이 음식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포장마차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반찬과 복음을 전한다. 주일예배에서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심방하면서 주민들을 예배로 초대하고, 성인들은 예배를 준비한다. 사역에 빈틈이 없다.

남대문 5가 마을예배에는 여름에는 80여 명, 겨울에는 50여 명이 참석한다. 그들 중에서 온

누리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20명이 넘는다. 지난 1월 23일 끝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하루도 빠짐없이 두 시간을 걸어 참석한 주민도 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생전 안하던 한글공부를 시작한 주민도 있다. 남대문5가 주민들과 사역팀은 한 가족이 되었다.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을 고향집 찾아 온 자식처럼 대한다. 아끼고 아껴두었던 음식을 꺼내주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도 한다. 지금 남대문 5가 쪽방촌에는 사랑꽃이 활짝 피었다.

쪽방촌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얼굴만 보면 싸우던 주민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인사를 주고받는다. 우울증을 극복한 주민도 있다. 골목에 넘쳐나던 오물과 쓰레기를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주민들 스스로 골목을 청소한다. 달라진 마을환경과 주민들의 모습에 건물주들이 사역팀에게 감사인사를 할 정도다.

새로운 꿈을 꾸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스스로 돈을 마련하고, 사역팀에게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을 장만한 주민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주민들도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도 쪽방촌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을 시작했다. 임대주택마련 뿐 아니라 대학진학, 목돈 모으기 등 다양한 꿈을 꾸고 있다. 실제로 꿈을 이룬 주민들이 하나 둘 쪽방촌을 떠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남대문 5가 마을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섬김을 받던 주민들이 이제는 남을 섬긴다. 햇살9순 순원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심시일반 돈을 모아 형편이 더 어려운 주민의 월세를 내주기도 했다. 마을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온누리교회가 온 뒤로 마을이 몰라보게 변했다”고 한다. 남대문 5가는 쪽방촌 복음

화의 좋은 모델이 틀림없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남대문 5가 마을주민들을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먼저 쪽방촌 주민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보자. 매주일 12시 30분 마을 근처 식당에서 드린다.

공동체의 섬김도 필요하다. 남오순과 햇살9순 순원들이 많아져 분순을 해야 하는데 그들을 양육할 순장과 공동체가 부족하다. 그들을 양육할 전담 목회자도 필요하다. ‘사랑의 포장마차’ 사역에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포장마차는 사역팀원들이 심시일반 돈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사역팀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던지 소문이 자자하다. 서울역 노숙자들까지 찾아온다. 매주 120여 명이 사랑의 포장마차를 찾아온다.

성도들의 후원으로 더 많은 쪽방촌 주민들과 노숙자들에게 푸짐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예배처소다. 지금 남대문 5가 주민들은 여름에는 마을공원, 겨울에는 인근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30명이 들어서면 꽉 차는 식당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예배드리고 있다. 계단까지 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마을주민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공간이 생기기를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문의: 이형기 성인팀장 (010-5273-5739)
임지영 청년팀장 (010-8009-4037)
후원계좌: 국민은행 851402-00-025209
(예금주: 김미정)
기업은행 01075124620
(예금주: 김순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이하 아버지학교)는 이 시대 아버지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1995년 10월 탄생한 아버지학교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IMF)로 실의에 빠진 아버지들을 치유하고 소망을 북돋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버지들이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참하도록 만드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금까지 아버지학교는 국내 77개, 해외 62개국, 256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교회에서 일반 아버지학교로 시작해, 비신자를 위한 ‘열린아버지학교’까지 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아버지학교는 교포들을 위한 아버지학교로 시작해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아프리카 5대양 6대주로 뻗어 나갔다.

아버지학교는 1995년 10월 두란노서원에서 창설했다. 하용조 목사, 황은철 목사(현 브라질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도은미 사모가 주축이 되어 ‘1기 아버지학교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것이 모태가 됐다. 김성묵 장로가 바통을 이어 받아 21년째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는 올바른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 리더십, 권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해왔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다 2000년에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가 발족하면서 기업체, 학교, 사회단체, 관공서까지 확대됐다. 2000년에 대구 보병 50사단 강철교회 군 장병을 대상으로 군부대 아버지학교가 열렸고, 2003년에는 여주 교도소에서 ‘교도소 아버지학교’가 시작됐다. 2004년에는 서울 성북구청에서 관공서 아버지학교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수원에서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특수 아버지학교’와 한국 전력공사에서 ‘기업체 아버지학교’를 실시했다. 2006년에는 서울 서소문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시작했다. 2008년 아버지학교 개설 2000회를 맞이했고, 2012년 ‘블레싱 패밀리’를 개최했는데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는 아버지학교 창립 20주년이었다. 아버지학교는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올해 비전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창조적인 변화’다.

국내 77개, 해외 62개국, 256개 도시에서 개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 위해 땅 끝까지 간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이 서로 안마를 해주고 있다.

장벽 없는 아버지학교

아버지학교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는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아버지학교’, 비신자를 대상으로 한 ‘열린 아버지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 아버지학교’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남성회복운동이다. 4~5주 동안 진행된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운다. 아버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돕는다.

IMF이후, 아버지학교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기독교인의 참석이 급증했다. 일반인들을 위한 아버지학교 개설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기독교 색채를 제한한 ‘열린 아버지학교’가 문을 열었다. 군인, 재소자,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군 아버지학교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아버지로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바른 자세를 익히도록 도왔고, 교도소 아버지학교는 재소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했다.

어떤 교정프로그램보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수 아버지학교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아버지들의 경제적 자립문제도 도왔다. 관공서 아버지학교는 공무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섬김과 아버지의 역할이 같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기업체 아버지학교는 직장인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도록 했다. 부부학교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학교를 연령대별로 운영하면서 올바른 아버지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청소년가정캠프는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왔고,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훈련학교에서는 올바른 결혼관 정립을, 은퇴자들을 위한 은퇴자 아버지학교에서는 제2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머니학교는 건강한 여성,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훈련하고 있다. 어머니학교는 김성묵 장로의 아내 한은경 권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아버지학교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까지 지경을 넓혔다. 2000년 미국과 중국을 시작

으로 현재 62개국에 ‘해외 아버지학교’를 개설했다. 국내에서는 77개 지역으로 뻗어나갔다. 각 대륙과 지역의 상황이 다르지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명제는 동일했다.

아버지학교는 향후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것이 비전이고, 사명이다. 향후 20년을 위해 아버지학교는 협력 네트워크의 세계화, 봉사자의 전문화, 실천하는 아버지상 구현과 홍보, 사회적 실천운동 강화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협력 네트워크 세계화는 NGO 단체와 연결해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다. 봉사자의 전문화를 위해 2년마다 학술제를 열고 있다. 프로그램 분석 및 보완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봉사자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성경적 모델의 아버지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국가정책과 연관된 사회운동 전개 등을 통해 아버지학교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칼럼 김성묵 장로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1991년 하용조 목사님께서 내게 한 말이다. 당시 우리 가정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나는 하 목사님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버지학교 1기 참석하고 나서 가정사역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가정은 삶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불철주야

전국의 아버지들을 찾아다녔다. 아버지학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아버지학교 자원봉사자들은 평일에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도 토요일이면 아버지학교에 와서 종일 시간과 재능을 투자했다. 그런 아버지들을 볼 때마다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우리는 매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를 외친다. 이 구호는 아버지학교의 전문성과 신앙을 의미한다. 아버지들이 관계를 회복해야 가정이 순탄

하다는 의미다.

아버지학교에서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들과 데이트를 하고, 편지 읽는 숙제를 내준다. 신앙과 인생은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버지학교는 ‘관계훈련’을 하는 곳이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반응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곳이다. 접근과 반응 훈련을 반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된다.

아버지학교에는 각양각색의 아버지들이 모인다. 알코올중독자, 조직폭력배, 군인, 경찰, 노숙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결국 아버지학교는 사회적 아픔, 세계적 아픔을 품고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곧 선교다. 아버지가 자녀와 관계 회복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밥상을 차리고, 평생 아내를 폭행하던 남편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학교는 향후 20년, 아니 30년, 40년까지 달려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버지학교 = 관계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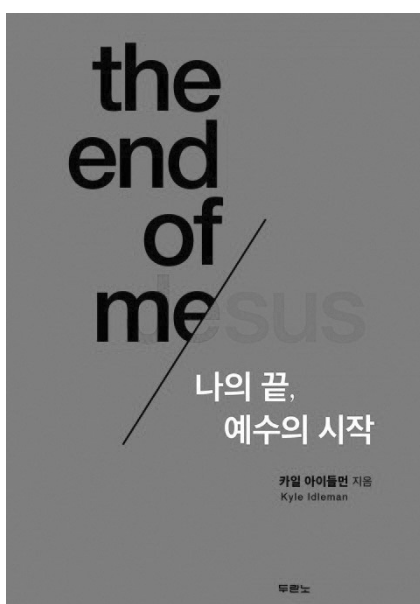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강현 전도사
(양지 온누리교회)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은 휘황찬란한 일들만 가득하지 않다. 절망과 고통으로 범벅되어 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들어서지만 마음에는 온갖 고민과 수심이 가득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어느새 아픔을 감추는데 도가 튼 ‘고통 감춤 전문 연기자’가 된다.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말 못할 고통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인생의 고통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기독교 가치관’과 남의 이목과 판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유교문화의 ‘체면주의’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고통을 감내하려고 부단히 애쓴다. 드러내지 않아 묵혀 있던 고통은 세상의 가치관에 맞물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 아이들먼(Kyle Idleman)은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 빠진 자들에게 “나의 끝이 바로 예수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벼랑 끝에 이르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그는 신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대역전’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주제에 걸맞은 이야기를 잘 버무렸다.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기술했다. 책에 담긴 주옥과 같은 가르침의 일부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깨어진 존재다. 자신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수록 더 깨어진 상태다. 우리의 깨어진 조각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주신다.

애통하는 자: 처절한 고통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 뿐만 아니라 죄를 실수, 중독, 병으로 축소하지 말고,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

온유한 자: 눈에 보이는 성과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

마음이 청결한 자: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내면의 청결함이 필요하다. ‘실제 삶’과 ‘보이는 삶’이 같아야 한다.

비움과 채움: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을 채워 주기 원하신다. 신상품, 바쁨, 사람으로 그 공간을 채워봤자 공허하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한다.

향복과 회복: 하나님은 무력한 우리를 도와 주기 원하신다.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긍정으로 전환하라. 바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라.

실패와 사명: 우리의 실패작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바꾸기 원하신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약점으로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가시와 능력: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절망에 빠져 허덕일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를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의 본질과 마주하는 순간이다.

완벽한 삶을 포기하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날마다 자신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현재 당신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못 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인생길을 거닐고 있다는 증거다. 이 책은 절망과 고통이라는 죽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길”이라고 위로하고 있다.



성경체질 그리고 건강 5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체질별로 분석한 연구는 영국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가 시작했다. 팀 라하이 목사는 기질론을 보편화시킨 인물이다. 5회에 걸쳐 성경 속 인물들을 기질론으로 풀어낸다.

장점을 계발해서 쓰시는 하나님



류모세 선교사
(경희살롱한의원 원장,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친숙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체질에 따른 기질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눈치 빠른 분이라면 기질론이 심리학의 한 분야임을 캐치했을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제자 융이 4대 심리적 기질론을 만들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목표는 자기인식(self-recognition)과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제자 융은 심리학의 목표에 훨씬 근접했다고 할 수 있다. 융이 제시한 4대 심리적 기질론은 자신(물론 타인도 포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온전한 자아실현을 위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심리학은 ‘자기인식’ 단계까지는 도움을 주지만 최종 목표인 ‘자기실현’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심리학이란 학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로부터 듣는 말은 늘 이거다.

“당신이 심리학자라고? 이렇게 아내 맘도 몰라주면서!”

필자의 이야기를 하나 더 보태면 이렇다. 나는 결혼한 지 1년 후〈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고려원)라는 책을 출간했다. 신혼 때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단골로 공격해댄 레퍼토리 역시 유사했다.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고? 보이긴 뭐가 보여?”

심리학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설파했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런 인간의 실존을 통찰했던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5).

기질론을 가지고 환자들을 도왔던 크리스천 심리학자 헨리 브란트 박사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만일 내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치료할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문제를 도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오직 신앙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타고난 기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기질적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쓰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 모세, 바울, 베드로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적 약점은 덮고, 장점을 계발해서 쓰신다. 결국 하나님께 굳게 붙잡혀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기실현이 가능하다. 심리학은 자기인식의 단계에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약간이라고 해도 그 유용성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할 수는 없다.

열린다성경 아카데미 봄 학기 강좌

구약심화과정

일시: 3월 7일~4월 11일(매주 월,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사: 류모세 선교사

문의: 010-4902-1022

차세대 부흥집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선생님’

3월 2일과 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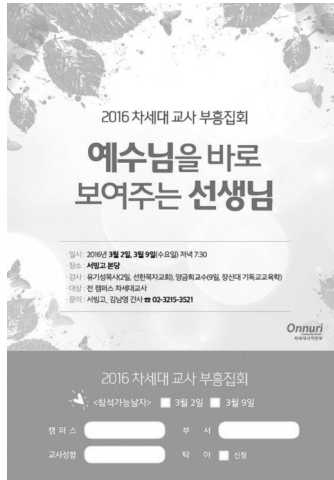
차세대사역본부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선생님’을 주제로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3월 2일과 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7시30분에 막 오른다.

이번 집회는 차세대들에게 건강한 영성을 흘려보내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와 양금희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가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속 교사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차세대들에게 선한영향력을 주는 방법을 배우는 집회에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청소년 창의캠프 ‘Sketch’ 개최

3월 1일 도곡교육관 온유홀

청소년을 위한 창의캠프 ‘Sketch’가 개최된다. 3월 1일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 된다.

양재 창조과학 선교팀이 주최하는 창의캠프 Sketch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학, 의학, IT, 바이오, 창조과학 등 각 분야 기독교인 전문가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우상두 원장(서울대 치의학 박사)이 ‘의료인의 길’, 구주와 변호사가 ‘로스쿨 진학과 법조인

의 길’, 고건 교수(이화여대)가 ‘IT 시대의 교육대비 전략’, 주영창 교수(서울대 재료공학부)가 ‘창의 발상과 융합 학문을 위한 학습법’ 등을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google/bdwzh)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이다. 가족접수, 선교사, 목회자 자녀, 단체(10명)는 할인받을 수 있다.

문의: 한외숙 간사 010-8906-4940

kristinhan@daum.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성인공동체 전도사역자 첫 모임

맞춤전도집회 섬김, 전도 프로그램 소개

성인공동체 전도사역자 모임이 시작됐다. 지난 1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공동체 전도사역자 첫 번째 모임이 있었다. 공동체 전도사역자는 공동체별로 한 커플씩 임명되었다. 이날 모임은 오리엔테이션, 네트워크 구축, 교제,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체 전도사역자들은 맞춤전도집회에서 테이블 리더, 테이블 도우미를 맡는다. 전도대상자들의 마음 문을 여

는 역할이다. 결신서 작성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도 한다. 또한 공동체에 전도 관련 프로그램(전도폭발훈련, 생활전도학교 등)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공동체 전도사역자 모임 팀장 최준수, 황호경 집사(김포공동체)는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들과 함께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홀리스타 공동체 변경

명동과 대학로 홀리스타를 섬기는 공동체가 변경된다. 앞으로 길공동체와 pok2공동체가 대학로, SNS공동체가 명동 홀리스타를 섬긴다.

대학로 홀리스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40분에 해화역 1번 출구 앞 ‘이룸’에서 열린다. 명동 홀리스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명동역 3번 출구 앞 ‘리투체웨딩홀’에서 오전 6시30분에 시작한다. 홀리스타는 도심 속에서 드리는 청년들의 새벽예배다. 서울 시내 12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2016년 하반기 결혼예배 순서 추천

3월 5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

‘2016년 하반기 결혼예배’ 순서를 3월 5일 오후 1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추천한다. 서빙고와 양재 모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 혹은 양가 부모 중 한 명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인 경우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예약금 50만원과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예비 신랑신부가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한 명만 온누리교회 성도일 때는 해당 성도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타 교회

성도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부모가 온누리교회 성도면서 예비 신랑신부가 타 교회 교인일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연락처와 예비 신랑신부가 다니는 교회의 ‘소속교회 교인확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서빙고: 홍수정(02-3215-3179)

양재: 안수정(02-3215-317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2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 모집

22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주간반은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저녁반은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2층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회비는 7만원이다. 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전도폭발훈련은 평신도를 생활 속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학기별로 한 단계씩 진행된다.

문의: 주간반 김태리 010-7900-3908

저녁반 이규성 010-3388-067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161기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부부코칭 프로그램 ... 3월 19일 실시

‘아름다운 동행(부부코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부코칭 프로그램이다. 코치가 가정 세 가정에게 일대일 제자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부부관계 진단, 배우자 바로 알기, 부부관계 툴(Tool)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도록 돕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은 3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된다. 매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3월 12일까지 아이스쿨 또는 전화 및 이메일(olivegarden8@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5만원(교재비, 수련회비 포함), 24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윤병욱 팀장 010-5255-7333

강창모 총무 010-2042-2323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6년 평양남노회 노회고시 서류 준비 및 일정안내

1. 목사후보생고시 일시 및 장소

일시: 2016년 3/22(화) 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구비서류

첫 응시자: 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확인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

※ 당회장추천서, 세례확인서: 교회에서 발급함. 당회장추천서발급의 경우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받으신 다음 신청서 확인란에 담당목사님의 서명을 받은 후 서빙고 목회지원실로 오셔서 증명서 발급담당간사에게 추천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례확인서: 타 교회 세례자라도 현실적으로 세례받은 교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분은 교회에서 발급함. (단,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에 한함)

재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상단기록: 불합격날짜, 재시 or 삼시), 이력서(사진첨부) 각 1부

2. 신학생계속청원

신학생계속청원서 1부

3. 전도사고시 준비서류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정치, 면접

4. 서류제출처 목회행정실(서빙고) 김경열 간사 (02-3215-3234)

직접 방문해 주세요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반드시 지필서명.

마감: 2월 26일(금) 오후 5시

서빙고 OBC 세미나 개강 일정

날짜	요일	시간	과목	강사
3월 8일(8주)	화요일	9:30~12:00	갈라디아서	이기훈 목사
접수: 아이스쿨(갈라디아서), 회비: 2만원, 문의: 010-8627-2098				
3월 15일(8주)	화요일	19:30~22:00	요한복음	이재정 목사
접수: 아이스쿨(요한복음), 회비: 2만원, 문의: 010-5294-9024				
3월 10일(8주)	목요일	10:00~12:30	하나님의 성품	강미향 목사
접수: 아이스쿨(하나님의 성품), 회비: 2만원, 문의: 010-8627-2098				
3월 10일(16주)	목요일	19:30~22:00	성경통독학교(신구약)	손신국 목사
접수: 아이스쿨(성경통독학교)/신구약, 회비: 2만원, 문의: 010-2362-0601				

제1087호 | 2016년 2월 21일(주일)

■ 세례 간증



/ 이수빈 성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에게 일요일은 늦잠을 자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되었다.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다. 일요일이 주일로 바뀐 6개월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는 28년 동안 종교가 없었다. 간혹 사람들이 내게 종교가 무엇인냐고 물으면 “나 자신을 믿는다”고 대답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나 이외에는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생겼다. 나는 결혼하고 원하면 두세 달 내로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생기자 삶을 이끄는 것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부터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다. 청소년 시절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교회와 멀어진 상태였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며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신 시아버지도 생각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임신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임신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일 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박은실 성도(성동광진공동체)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교회에 다닌 지 4년 반. 그 중의 반을 전도폭발훈련에 참가했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OBC 요한복음 강해 과정을 듣고 ‘나도 언젠가는 전도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었다. 일대일 제자훈련 양육자반에서 만난 백소영 총무가 나를 전도폭발훈련으로 초대했다. 사실 “아, 좀 있다 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순종하고 용감하게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전도전문 암기훈련’을 받을 때 김숙경 권사님께서 암기 전에 전문을 큐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큐티 없이는 말씀이 외워지지 않고, 외운다한들 허무한 징소리와 뿔과리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큐티하고,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전문을 전할 때 말씀이 힘이 있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는 암기된 말씀들이 주일설교 말씀과 OBC 수업을 통해 듣는 말씀들과 함께 보배로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었다.

전도폭발훈련 기간 우리 가정도 변화되었다.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치료차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임신을 해서 약 처방을 못 받는다고 말하자 의사선생님께서 대뜸 교회에 다니는지 물으셨다. 나는 다니지 않지만 신랑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자 메모지에 시편, 잠언이라고 적어주셨다. 태아를 위해 나와 신랑이 기도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신기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갑자기 미션스쿨에 다녔던 일, 그동안 몇 분이 나를 전도하려 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어 의사선생님께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물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부가 결혼 전 시부모님의 권유로 다닌 예비부부학교가 열린 온누리교회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주부터 새신자예배에 참석했다. 교회에 처음 온 나를 위해 새신자예배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줬다. 삶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불평불만이 사라졌다. 앞으로 타인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 IBS 토요반 58기 수료 간증



/ 이정은 집사(서빙고공동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

3년 전, 전도폭발훈련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꿈꾸는 자매를 만났다. 그 자매는 내 훈련제자였다. 그 자매가 내게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를 소개시켜주었다. 그때 처음 KIBI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나는 송만석 장로님의 IBS(Israel Bible Study) 특강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지금만큼 이스라엘에 대해 알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했다.

IBS에 참가하면서 몰랐던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비밀을 알고 난 이후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방인인 나를 위해 희생된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빛진 자로 그 빛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수 천년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일단 내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

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비밀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매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유대인 사역과 알리아(유대인 귀환) 사역을 위해 후원금도 보낸다. 앞으로는 매달 약정해서 보낼 계획이다. 내게 KIBI를 알게 해준 자매는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부름 받아 있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최근에는 후원금도 보냈다. 그 자매와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 이런 자그마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는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본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라여서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가고 싶다.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민족을 사랑하신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없이 부족한 나 같은 죄인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 간증



/ 반진영 형제(Pole2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달리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분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과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반을 시작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 그저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양육자님을 만나면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었다.

요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기억하는 것 같다. 힘들 때 말씀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줬다. 말씀이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아닐까. 의지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일대일 제자양육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세상 누구도 답변해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답해주셨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거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다만 양육자님과 대화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답변을 들

수 있었다. 가끔 양육자님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 할 때 “이건 내가 이번 주에 했던 고민이잖아?”라며 깜짝 놀랄 때도 많았다.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양육자님 또한 공감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다. 동반자와 양육자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탓하신 적이 없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는 동안 나는 성경을 토대로 위로받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었다. 어느 날 양육자님이 “과제를 하지 않아서 혼날 것 같은 두려움이나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일대일 제자양육을 빠지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 말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일대일 제자양육에 이어갔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갔을 때 후회한 적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내가 존재하느냐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장로칼럼 하영철 장로

저녁 무렵(Eventide)

잘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찬송가 한 곡을 소개할까 한다. 481장(통 531)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이다. 영어제목은 ‘Eventide’(저녁 무렵)다.

이 곡의 가사는 1847년 폐병에 걸린 영국성공회 목사 H.F.Lyte가 해변을 걸으면서 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임종을 저녁 무렵에 빗대어 쓴 것이다. 이 시는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저희가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Abide with us=Stay with us)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for it is nearly evening; the day is almost over)”에 착상해서 ‘Eventide’(저녁 무렵) 혹은 ‘Abide with me’(나와 함께 머무소서)로 소개되었다.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삶,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막을 거두려 할 때, 건강의 위기를 느낄 때, 날이 어두워져가니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호소하고 싶지 않은가? 어떤 친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분, 변함없으신 분,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나와 함께 머무소서 외치며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

이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천천히 불러보자. 온 영혼을 감싸는 감동이 흘러넘칠 것이다. 곡의 음율에 맞추다보니 축약된 기분이 들기에 원문에 충실한 번역시를 통해 더 깊은 감명을 느끼길 바란다.

“저와 함께 하소서, 날이 급히 어두워 지나이다 어둠이 깊어지니 주여 저와 함께 하소서 다른 돕는 이들이 돕지 못하여 모든 위안이 없어졌나이다 힘 없는 저를 도와주소, 오 저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영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추모제나 장례식 곡으로 불리고 있다. 영국 국기(國技) 럭비나 축구(Soccer) 경기를 시작할 때, 유명가수가 광장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약 25년전 이 찬송가를 알고, 가사와 곡이 너무 좋아 즐겨 읊조리곤 했었다. 인생 8학년이 되고, 각종 질병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고생하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이 찬송가를 다시 부르게 되었다. 이 찬송을 읊조리며 기도드리자.

“축복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두려움도 재난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승리가 내 앞에 온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권사칼럼 성경숙 권사(서초C공동체)

찬양하는 기쁨을 놓칠 수 없다

2002년에 양재 온누리교회 열린예배(오전 11시30분)가 시작되었다. 조호영 목사님(당시 전도사)이 오후 7시 예배를 섬기던 스테플을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구성해 기존의 예배형식과 다른 예배를 기획(특수, 게스트 초청, 스킷드라마했다. 브룩클린 터버너클교회를 방문하고 오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기존 성가대와는 다른 찬양팀을 세우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이다.

뮤지컬배우 이태원 자매를 디렉터로 춤, 노래, 연기가 되는 성도들을 모집했다. 오디션용 거쳐 뮤지컬찬양팀이 구성되고, 2003년부터 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 공자도 더러 있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춤, 노래, 연기에 재능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 한 팀을 이루었다. 하용조 목사님의 탁월한 문화 감각, 시대를 읽는 통찰력, 많은 이들의 열정과 순수한 헌신이 ‘뮤지컬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다.

2007년 이태원 성가사가 떠난 뒤 난항을 겪다 부지휘자로 있던 채미연 자매가 성가사로 세워졌다. 한 달 동안 활동을 멈추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팀을 재결성했다. 2007년 지금의 뮤지컬찬양팀으로 재탄생했다. 박성희 목사님과 정영기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 섬김과 후원이 바탕이 되어 부흥했다.

뮤지컬찬양팀은 연무대를 비롯한 군부대, 지방의 크고 작은 교회, 국내의 온누리교회, 일본 및 대만 러브소나타, 자체 공연 등 많은 사역을 해왔다. 비전공자인 나는 집사로 섬기다 어느새 최고령 권사가 됐다. 특히

대만 러브소나타 공연은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화려하고, 보여줄 것이 많은 연예인 게스트 공연이 끝나고 뮤지컬찬양팀 공연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남았다. 일본인과 다르게 대만인들은 자유분방했다. 약간 어수선했던 분위기였다.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리에 섰다.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주가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회중들이 몸을 똑바로 세우고 찬양에 집중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대만어로 찬양하며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다. 회중이 귀 기울이고, 표정이 변했다. 감동의 물결이었다. 찬양하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가 되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소명을 주신 것 같았다.

박자가 어렵고 안무가 안 될 때는 소심해 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도전하며 극복해 갈 것이다. 뮤지컬찬양팀 안에서 지체들이 결혼도 하고, 전임사역자를 배출한 것도 은혜다.

나는 찬양하는 기쁨을 놓칠 수 없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엄마 같은 권사가 되어 권면하고, 사랑과 온유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영배 목사(서초C공동체)

은혜와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한다.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모두 필요하다는 말이다. 가정에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과 규율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자녀들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받거나 방임의 삶을 살게 된다.

요한복음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야기(요 8:1~11)가 나온다. 종교지도자들은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죄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증을 물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여인을 돌로 치라.”

사람들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다. 먼저는 용서라는 은혜의 메시지요, 다음은 죄를 짓지 말라는 진리의

메시지였다. 이처럼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의 사랑과 새로운 삶의 기준을 체험했다. 사람들은 여인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영적성숙의 기회를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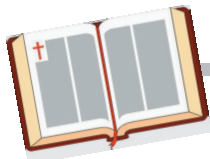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한 기대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을 향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시대의 풍류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인생의 방향을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은혜가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쁨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한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라고 물으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와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진리가 충만한 삶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의 계명은 사랑보다 딱딱하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실상은 주의 계명을 올바르게 잘 지키는 성도는 그분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두 성품이 온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말씀의 기적

역사를 보는 눈이 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읽을 때 본별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16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도덕적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네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무관심 단계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동이 없는 단계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망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42~44절).

갈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눈을 뜨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망을 넘어 찬양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48절).

말씀에 대한 갈망을 통해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네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47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한 이유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써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유대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차적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취급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권한을 주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한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단계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49절).

말씀이 두루 퍼졌다는 것은 말씀을 갈망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서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갈망 단계로,

이어 말씀을 찬양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이제는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최우선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일부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다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50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습관입니다. 자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권위였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보다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작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물리적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도덕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기적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과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강해지고, 무관심에서 갈망으로, 갈망에서 찬양으로, 찬양에서 말씀의 통로로 변화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과학이야기 13. 창조론



이웅상 목사
(영지대학교 교목, 전 생명과학과 교수)

종교개혁을 주도하며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서유럽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에 이어 미국의 교회들 또한 점차 고령화되고, 비어가는 이유와 진화론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국 교회 또한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했지만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진화론의 영향력이다.

영국의 기독교인 수는 계속 감소했다.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27%나 감소했다. 대부분이 젊은 연령층이었다. 이러한 감소율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2003년과 2004년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14,000명의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서술형 설문조사였다. 놀랍게도 91%의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된 이유가 비슷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교인들, 특히 성경과 다른 내용을 교육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신앙에 대한 비판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대답해주고,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는 증거들로 그들의 믿음을 방어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타협하였고, 성경을 변증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 핍박을 받고 미국으로 망명한 루마니아의 조셉 톤(Josef Ton) 목사는 신문(New Life)에 이렇게 진술했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 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이론은 성경과 우리의 신앙에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이다.”

타협이론인 유신진화론은 그 단어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만물을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주장’이다. 창조주를 믿으면서 진화론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창조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설정한 것만 제외하면 내용은 거의 진화론이다. 우주만물의 시작도 빅뱅이론을 절대시하고, 인간도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세기 기록은 단지 창조신화, 홍수설화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창세기의 기록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한 것이고, 진화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진 것이라면 성경말씀에 권위가 있을까. 초월적 창조가 부정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

되고, 모든 것을 진화에 의해 설명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 죄와 사상에 대한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과학자들은 고대의 세계관을 반영한 성경은 발전된 과학을 활용해서 재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성경과 과학의 갈등은 진화론을 수용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과학자를 교회에 초청해서 청년들에게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성경말씀보다 진화론을 신뢰하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증명된 것도, 증명되어질 수 없는 이론이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담대하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 창조와 대홍수 심판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로 믿을 때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창조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기독교인 과학자들을 후원해 창조론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신학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목사이며, 과학자이며,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시대적 사명감을 절감하게 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종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후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 오전10:30~12:30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48기 인투(INTO)부모교실

일시: 2월 23일~25일(10시~17시)

대상: 차세대 자녀를 두신 부모(예비부모),

사역자 등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

회비: 11만원(2월 17일까지 등록 후 입금

시 10만원)

24기 청소년 인투(INTO)캠프

일시: 2월 25일~27일(2박3일)

대상: 청소년 (중2~고3), 청소년 유학생

장소: 파주영산수련원

회비: 14만 5천원

문의: 010-5296-0884, 02-3215-3651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모집

모집인원: 2명(동원훈련간사, 기획인사 및

CPM 행정간사)

제출서류: 지원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

서 1부 (홈페이지 참조: www.timorkr)

문의: 동원훈련간사 지원자(070-4464-

8118 / mtt4818@gmail.com)

기획인사간사 지원자(070-4464-8113

/ prt8113@gmail.com)

예사부(장애청년예배)드림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오전 11시 20분(토요일 연습)

문의: 찬양인도자(010-4201-3113)

온누리선교재단 보험(자동차) 업체 선

정 입찰 공고

계약기간: 3.26~2017.3.26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계약범위: 총 55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문의: 02-3215-3134

몽골국제대학교 강사 모집

자격: 영어로 강의 가능(한 학기 또는

온라인으로도 강의 가능)

내용: 온라인 강의 시 주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2회

온라인과목: Data Communication,

Wireless Technology, Software

Engineering, Computer Architecture,

Comp Org and Assembly Lang

현직과목: Web Design, Advanced

Programing 2

문의: 몽골국제대학교 한상진 교수

(sjhan@miiuedumn)

*게시판 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월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어린이(초등)/부모 하트 스쿨 모집

기간: 3월 12일(토) ~ 6월 14일(토)

시간: 매주 토요일 15시~18시

장소: 양재 JDS홀, 총성홀

인원: 30가정

문의: 이현대 전도사(010-5415-3879)

두란노서원 잡지본부 새벽나라팀

채용 공고

업무: 매거진 기획 / 취재 섭외,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

글로벌 대담

예수바보 행전

예수바보행전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의미와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진행

넬슨 제닝스 목사 (온누리선교연구소 소장)

출연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모엘링신학대학교 부총장)
이한영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구약학)

방송시간

2월 27일(토) 오후 11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메시지

KNOCK 웹드라마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무뚝뚝하고 늘 바쁘셨던 아버지와의 특별했던 하루.‘당신의 아버지’
영상보기

봄의 춤

따스한 봄처럼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봄의 춤’
영상보기

KNOCK 페이스북

www.facebook.com/cgntv.knock

TV 프로그램



▷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2/22(월) 오전 11시 30분
강원영월 삼옥교회를 방문해 달콤한 목소리
로 극한의 추위를 녹인 감성전도사 김관호
전도사(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2' 출연자)의
이야기입니다.



▷ 토크콘서트 힐링유
-2/25(금) 오후 10시 40분
기적보다 더 큰 감동을 연주하는 팔꿈치 피
아니스트 최혜연 자매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
지입니다.



▷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24(목) 오후 8시 10분
우리의 먹거리, 환경, 생활습관 등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태초의 가르침
에 따라 영과 육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간 편 성 표

2/21(주일)	2/22(월)	2/23(화)	2/24(수)	2/25(목)	2/26(금)	2/27(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김웅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일터사명 컨퍼런스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새브블레싱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5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시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2015 추영재단 목회강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00 2016 리더십 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